

#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 보도자료

|      |                  |         |                       |
|------|------------------|---------|-----------------------|
| 제공일자 | 2026. 9. 4.(금)   | 사진 · 영상 | 사진(○), 영상(×)          |
| 보도일자 | 2026년 9월 4일(금)부터 |         |                       |
| 담당부서 | 의정담당관 의정팀        | 담당자     | 박경용 사무관 ☎044-300-7211 |
|      |                  |         | 김용모 주무관 ☎044-300-7212 |

### 세종시의의회, 제2차 청렴리더단 회의 개최... “취약 분야 집중 개혁으로 청렴도 반등 총력”

과·팀장급 간부 중심 청렴 리더십 강화 및 16개 반부패 과제 이행 상황 점검  
'관행 파괴(관파)' 및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정성평가 핵심 대표 과제 선정

세종특별시의의회(의장 안신일)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덕중 사무처장 주재로 '2026년도 제2차 청렴리더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과·팀장급의 선도적인 청렴 실천을 바탕으로 2026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상황(16개 실행과제)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 시책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청렴리더단은 지난해 평가에서 지적된 부당 업무 요구 및 인사 불만 등 부패 취약 분야의 감점 요인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부 모시는 날', '눈치 야근' 등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인사 기조를 확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회의에서는 권익위 정성평가 감점 원인을 해소하고 고득점을 확보할 대표 우수사례 2건을 확정했다.

2분기 우수사례로는 정기인사 전 희망보직제 도입과 소통 채널을 통합한 「관행 파괴(관파)」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3분기 우수사례로는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요구 경계선을 명확히 한 지방의회 특화 『의원-공무원 상호존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부패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노력도 평가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 구성원과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관행적인 부당 지시를 타파하고, 이번에 발굴된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보완된 과제의 이행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재점검하여 오는 10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노력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